

# 이상 징후 감지하고 맞춤 해법도 척척... AI헬스케어 선도

### 생체·생활정보 AI 분석, 노인 정신건강 감지·관리 AI로 수면장애 개선, 산모·태아 실시간 건강 점검 "개인 맞춤형 AI 헬스케어 플랫폼 상용화도 가능"

광주시가 고령층 정신건강 돌봄, 수면 장애 개선, 임신부 건강 관리 등 생애 전(全) 주기를 아우르는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모델 실증에 나선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맞춤형 해법을 제안하는 AI 헬스케어 플랫폼까지 상용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인공지능 전환(AX) 2단계 실증 벨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니어 마인드케어 기술 ▲개인 슬립케어 플랫폼 ▲AI 기반 비침습 임신부 건강 관리 등을 헬스케어 분야 주요 AI 실증 과제로 선정했다.

각 실증 과제 단위로 세부 과업 선정, 추진 방향·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기술 개발·실증에 나선다.

◆AI가 고령층 정신건강 두루 살핀다

돋보이는 헬스케어 AX 실증 과제는 '멀티모달 시니어 마인드케어' 기술 개발이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울증, 치매 등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의료 접근성 한계가 있고 정신 질환에 대한 낙인 우려가 큰 고령층은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쉽지 않다.

시는 노인 정신건강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 분석하는 '멀티모달 AI' 기술을 개발, 고령층 정신건강 돌봄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목표는 행동·언어·표정, 심박동, 뇌파 등 생체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멀티모달 AI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에이

전트(Agent)·피지컬(Physical) AI 기반 마인드케어 서비스 상용화까지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멀티모달 AI로 정신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 탐지하면 의료·복지기관, 전문가, 가족과의 효율적인 연계도 가능하다.

웨어러블 기기, AI가전 등을 통해 일상 생활 중에도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어 고령층의 거부감도 덜할 것으로 보인다.

반려로봇, AI 챗봇 등 능동형 피지컬 AI와 대화형·운동 보조 에이전트 AI 역시 노인층 정신건강 관리의 한 축을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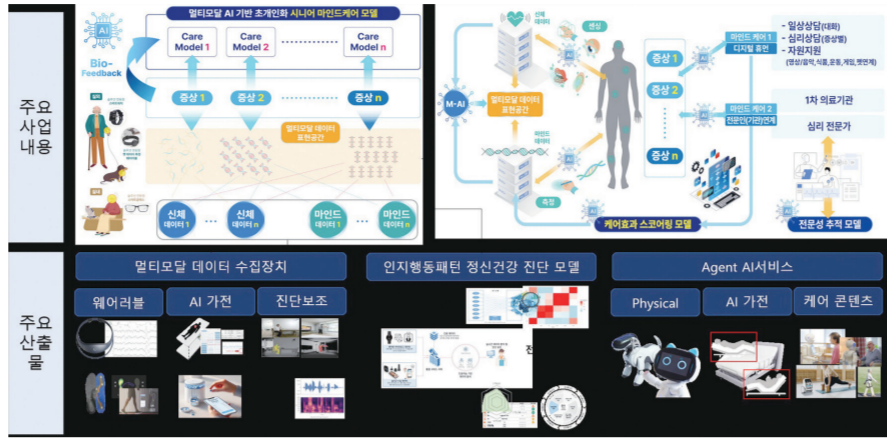
◆"수면장애 치료는 이렇게" 맞춤형 솔루션도

시는 몸에 기기를 삽입하지 않는 이른바 '비침습' 센서를 활용한 '초개인화 슬립케어 플랫폼' 개발·실증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수면 중 심박·호흡·움직임 등 다양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를 개발한다.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면증, 수면무호흡증, 야간 빈뇨, 하지불안 증후군 등 다양한 수면장애를 감지·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한다.

실증 사업이 분궤도에 오르면 개인별 맞춤형 수면 관리와 수면 질 개선 솔루션 제공, 수면 관리용 가전제품 상용화까지 나아갈 수 있다. 수면 토탈 케어를 통해 질병 예방 중심 관리 모델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수면 중 수집한 생체 정보의 임상적 유효성을 의료기관·복지시설과 연계하



는 검증은 AX 실증 벨리인 광주이기에 가능한 시도다.

◆"예비엄마 걱정 마요"...24시간 산모·태아 건강 파악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비침습(非侵襲) 방식으로 산모와 태아 건강을 수시 확인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 실증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의 출산 전 진단은 의료진의 영상 판독 경험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다. 의사의 초음파 영상 판독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이 달라지기도 했다.

AI 활용 의료 영상 분석·진단 기술은 실증하지만 법 규제와 기술적 난제에 직면,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실증 핵심 목표는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초음파 영상 분석 AI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하는 것이다.

의료진 판독 의존도는 크게 낮추고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AI 초음파영상 분석 기술 고도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패치' 형태로 신체에 부착하는 초음파 태내 영상 촬영 장치 개발, 산모·태아 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도 추

진한다.

시는 이미 AX 1단계 사업을 통해 대학병원·연구기관과 대규모 헬스케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 실증 데이터 등 병·의원이 갖고 있는 각종 의료 임상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져 있다.

이번 실증사업 성과에 따라 광주시는 AI·의료·시니어 케어를 융합하는 특화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헬스케어 분야는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민감 정보가 포함된 다량 데이터를 확보·분석·표준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수많은 기술 실증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광주가 AX 1단계 사업으로 거둔 성과를 토대로 2단계 실증까지 성공적으로 끝나면 AI 헬스케어 플랫폼을 상용화할 수 있다"며 "지나해 예산을 확보한 AI 특화병원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의뢰서비스 구현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5일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구 삼박엘에프티) 울촌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강병길 대표(왼쪽에서 여섯 번째)와 기업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양경자청, 글로벌 소재강국 도약의 현장을 가다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울촌공장 방문, 미래 투자현황 점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2월 25일(수) 대한민국 첨단 소재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른 롯데엔지니어링 플라스틱(구 삼박엘에프티) 울촌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울촌공장 착공과 사명 변경 이후 본격적인 생산 라인 가동과 추가 증설이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DX)에 대응하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지난 2019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면담을 시작으로 2021년 전남도, 광양경자청, 순천시, 광양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울촌산단 내 입지를 굳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삼박엘에프티'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며 글로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포하였고 총 32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울촌공장은 현재 11기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생산라인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2기의 생산라인을 추가 설치하여 연 50만톤 규모의 국내 최대 단일 컴파운드 생산 공장으로서 거듭날 예정이다.

구충곤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글로벌 EP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 선점과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고기능 슈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품군 개발 및 AI 활용 설계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구충곤 청장은 기업 측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적극적 행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 구충곤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시선호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올해 공직자 1000명을 뽑는다. 지방공무원 624명, 공무원 15명, 청원경찰 7명과 공공기관 공직자 354명(상반기 66명·하반기 288명)이다.

이는 지난해 공직자 신규채용 375명(지방공무원 210명, 공무원 21명, 청원경찰 7명, 공공기관 137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3배(266%)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신규 채용이 급증한 것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화,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철도2호선 개통 준비 등 광주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핵심사업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행정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해 '대통령상 7관왕'이라는 역대 최대 성과를 내는 등 대한민국 정책 대표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우수한 정책과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전국으로 확산 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 증

## 광주가 만든 결실, 청년 희망일자리로 광주시, 올해 공직자 1000명 뽑는다

공무원 646명·공공기관 354명... 전년대비 각각 3배가량 늘어

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먼저 시와 자치구에서 근무하게 될 지방공무원을 올해 624명 신규채용한다. 이는 지난해 210명보다 3배 가까이 확대된 규모이다. 지난 3년(2023년 117명, 2024년 105명, 2025년 210명) 평균 144명과 비교하면 채용 규모가 480명(333%) 늘어 4.3배 수준에 달한다.

먼저 광주시는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화에 따라 총 1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96명이 늘어난 사회복지직 107명, 간호직 52명, 보건직 10명, 보건진료직 1명 등이다.

행정직(7급 포함) 채용 규모도 지난해 대비 약 4.4배 많아진 272명을 채용한다. 통합돌봄 확대와 함께 행정통합, 민공공합 통합이전 추진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가 반영됐다. 여기에 공무원 15명과 청원경찰 7명도 신규 채용한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공

직자 354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137명 대비 258%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광주교통공사 278명, 광주도시공사 25명, 광주환경공단 13명, 광주관광공사 11명, 광주교통약자지원센터 7명,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4명,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디자인진흥원 각 3명, 광주여성가족재단·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광주시체육회 각각 2명,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각각 1명씩이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채용인력의 78.5%를 차지하는 278명을 광주교통공사에서 채용한다. 광주교통공사는 올해 채용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234명을 단계적으로 선발, 총 512명을 뽑는다. /신영길 기자

## 전남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24.2% 증가 692억원

전라남도는 2025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이 전년(557억 원)보다 24.2% 증가한 69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품목별 거래액은 쌀 202억 원, 양파 188억 원, 방울토마토 14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산 농산물이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거래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간·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주요 거래품목은 청과류, 양곡류, 축산물, 국산 가공품 등 202개 품목이다.

전남도는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지의 참여를 이끄는 데 힘썼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1천만 원 이내에서 유통비의 70%(최대 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해 3월과 9월 두 차례 산지유통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총 5회 현장 방문 컨설팅을 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했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